

LGD 자원순환 강화…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

작년 폐기물 9.6만톤…전년 대비 25% 줄여

OLED 폐액 은 추출 고순도 정제체계 확보

203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 플레티넘 달성

LG디스플레이가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파주·구미 사업장이 ‘UL솔루션즈’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인증 플레티넘 등급을 받으며 국내 전 사업장이 최고 등급 인증을 갖추게 됐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기업의 자원 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이다.

응용 안전 과학 분야 국제 공인 기관인 UL솔루션즈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한 비율을 검증하고 실버(90% 이상), 골드(95~99%), 플레티넘(100%) 등급을 부여한다.

파주·구미 사업장은 2022년 98% 이상의 자원순환 이용률로 친환경 사업장 인증서를 받은 바 있다. 폐기비용 감축, 폐자원 판매 부가 수익 등 연간 약 200억원의 성과도 이뤘다.

지난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약 9만6000톤으로 2022년에 발생한 12만8000톤 대비 25% 이상 감소했다.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돼 30년생 소나무 64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뒀다.

경제적 성과도 기대된다. 올해는 자원순환 개선활동으로 전년 대비 약 45%에 해당하는 89억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은 설계·제조·검수·출하 과정에서 종류별로 분리된 뒤 외부에서 고품질 재생원료로 가공돼 다양한 산업활동에 활용된다.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유리는 파쇄 효율을 개선해 재활용하고, 폐합성수지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LGD 폐기물 매립제로 이미지 (사진=젯GPT 생성)

공동 개발한 특허 기술을 적용해 플라스틱과 비닐 원료로 다시 쓰이고 있다. 그 결과 매립량 ‘제로(0%)’를 실현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식각액 폐액에서 은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회수한 은을 고순도로 정제해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연간 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됐다.

폐합성수지류에 대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부여하는 ‘순환

자원 품질인증’도 추가 획득했다. 유해 물질과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이에 따라 트레이(Tray), 보호필름, A급 비닐 등 8종의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품질인증까지 획득했다.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되며 연간 약 600톤의 폐기물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말까지 해외 전 생산법인의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플레티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자원순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폐기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 kbn@asiatime.co.kr



아시아타임즈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5

포스코 추석 맞아

협력사 구매대금 조기지급

포스코는 추석을 맞아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협력사·공급사 등 거래기업의 명절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400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는 거래 기업의 자금 소요가 명절 전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거래 대금을 매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매주 두 차례 지급하던 설비 자체 구매 대금, 원료비, 공사비 대금은 매일 지급하고, 매일 초 지급하는 협력사의 협력 작업비도 이 기간 매일 지급할 방침이다.

최근 관세 부과와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철강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선제적으로 거래기업 대상 대금 조기지급을 실시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포스코는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거래기업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조기 지급이 철강 불황,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래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시하 기자 seeha@asiatime.co.kr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

대한전선이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고압 해상풍력 외부망 생산이 가능한 신규 해저케이블 공장을 세운다.

대한전선은 25일 충남 당진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을 개최한다. 해저 케이블 2공장은 약 5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2공장은 약 21만5000㎡의 부지 위에 세워진다. 인접한 1공장(4만7000㎡)보다 약 5배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400킬로볼트(kV)급 고압교류송전(HVAC)과 최대 640kV급 HVDC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게 된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2공장은 VCV(Vertical Continuous Vulcanization) 타워 및 침탄 설비를 갖춰 다양한 해저 케이블을 적기에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공장에서 HVAC를 생산하면 국내 해상 풍력 케이블 시장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해상 풍력 케이블은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분된다. 내부망은 풍력 터빈과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력망으로 보통 중저압(33~66kV급) 해저 케이블을 사용한다. 외부망은 해상변전소에서 육상의 계통 연계 지점까지를 연결한다.

박요든 기자 Yodanpark@asiatime.co.kr

車 취향 담은 놀이터…‘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리뉴얼

초타야서점 기획·운영 CCC 협업

차량 전시 멤버십 라운지 선보여

“車 사랑하는 문화 완성하는 공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대차는 “현대차 브랜드 최초의 체험 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이 리뉴얼을 마치고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2014년 개관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은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전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브랜드 방향성이 반영된 모빌리티 전시와 문화·예술 콘텐츠, 시승 프로그램 등 고객이 직접 현대차와 자동차에 대한 직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객 소통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라는 본질로 돌아가 ‘자동차에 대한 모든 취향’을 담은 놀이터’란 콘셉트 아래 △헤리티지 △라이프스타일 △레이싱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리뉴얼을 진

행했다. 현대차는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참여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객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자 자동차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디자인의 경우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개관 당시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서아키텍스’와 함께 자원 순환의 철학을 담은 파이프와 강판 등 기존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변화한 자동차 콘텐츠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구성했다.

리뉴얼된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1층과 2층에는 일본 서점 브랜드 ‘초타야 서점’을 기획·운영하는 ‘CCC’와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콘텐츠를 담은 ‘오토라이브러리’를 선보인다. 초타야 서점은 단순한 서점을 넘어 방문객이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제안하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1층 전경. (사진=현대차)

는 일본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오토라이브러리’는 책과 아이템을 함께 전시하여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전달하는 초타야 서점 운영 노하우를 살려 헤리티지,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션 섹션으로 구성된 공간에 세심하게 큐레이션한 2500여권의 도서와 500여 개의 자동차 전문 아이템을 감각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미니카 △카탈로그 △델름링 등 마니아들의 소장 가치가 높은 빈티지 아이템들을 모아 놓은 ‘빈

티지 컬렉션’은 전세계 수집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희귀한 아이템들을 직접 수집해 구성한 것으로 일부 아이템의 경우 전시뿐만 아니라 구매도 가능해 많은 마니아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설적인 오프로드 레이싱 대회 ‘카멜 트로피’한 정관 폐기지를 포함해 오늘날 자동차 문화를 있게 한 다양한 서적들과 아웃도어, 캠핑, 여행 등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관련 책들, 미래 테크놀로지

우승준 기자 dn1114@asiatime.co.kr

‘11만전자’ 간다…‘이재용의 뉴 삼성’에 증권시장 ‘들썩’

오너리스크 해소 이후 주가 상승세 꾸준

이달 외국인·기관 보유율 51%까지 상승

삼성전자 주가가 1년 1개월 만에 8만원대를 회복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오너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데 이어 메모리 가격 상승과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외국인·기관 주식 보유율도 40%대에서 50%대로 올라섰다. 50%대를 유지하던 외국인·기관 보유율은 지난 16일 51%에 진

입했다. 외국인·기관의 보유율 상승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성에 대한 신뢰와 주가 상승 모멘텀을 뜻한다. 5~6만원 박스권에 갇혀있던 삼성전자 주가는 7월 28일 종가 7만400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8일 종가 8만500원으로 8만원대 진입했다. 19일 장 초반 8만1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했으나, 8만원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9만원에서 11만원, SK증권은 7만70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은 8만8000원에서 9만6000원,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은 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만4000원에서 각각 9만5000원과 9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주가 상향 조정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삼성 전자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금리인하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낙관론 등 대외적인 요인도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힘을 실고 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며 “매출

액은 87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다바이스솔루션(DS) 실적 개선이 주요 원인”이라며 “디램(DRAM)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차별화된 ASP(평균판매가격) 상승이 기대되며, 낸드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전 전망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 중인 가운데 갤럭시Z 폴드 역시 이전 전망보다 판매량이 많다”며 “연말까지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AI 서버 중심의 투자가 향후 일반 서버 등 서비스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AI 사이클 내 메모리 수요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서버 디램과 SSD로 확대되며 구조적 성장을 이

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HBM 단일 품목의 성패가 메모리 부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완화될 것이며, GDDR7 등 삼성전자가 경쟁우위를 가진 차세대 그래픽 디램 제품에 대한 수요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국정 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백시하 기자 seeha@asiatime.co.kr